

하루만 지켜도 공덕은 무한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3>

지난 호까지 재가 불자의 근본 계인 오계에 대하여 《우바새오 계상경》을 소의계경으로 하여 오계의 근본 정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계에 대한 강좌를 마쳤다. 이어서 팔관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제7계는 출추고 노래하거나 기묘한 연극을 보지 않고 화관, 향수, 화장품, 개인 장신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높은

의 '배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그러므로 팔관제는 '팔계일재(八戒一齋)'인 셈인데 계법(戒法)과 재법(齋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8가지 악을 가로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말하고, '재(齋)'란 삼가한다는 것과 같다. 논,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계달는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서도 권장되고 있는데, 《숫타니 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라. 둘째, 쥐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넷째, 술을 마시지 말라. 다섯째, 부정할 것을 하지 말라. 여섯째,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일곱째,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향수를 쓰지 말라. 여덟째, 땅 위에

뒹뒹한 장사를 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재가자는 죽은 후 '저절로 빛이 난다'는 신들 곁에 태어나리라."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란, 원래 인도의 소치기들 사이에서 소를 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 불교에 들어와 몸을 근신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참회 행사로 바뀌었다. 또 '포살'은 보름과 그믐 두 차례 출가 수행자들이 불전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은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뒹뒹한 장사'란 무기, 고기, 술, 독극물 판매, 살아있는 생명의 매매, 이 다섯 가지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오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로 기간은 길지만 가지는 수는 적고, 팔관제에는 지키는 기간은 짧으나 가지는 수는 많다. 그러므로 팔관제에의 뛰어남을 말할 때, 목숨이 다하도록 오계를 지키려고 해도 큰 원력이 없다면 큰 원력으로 하루 동안 팔관제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도 한다.

이처럼 큰 공덕이 있는 팔관제는 6개월이나 10개월, 아니면 스스로 정한 날에 받아 지니면 된다. 비록 하루 동안 지키는 게이지만 그 공덕과 이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마니보주가 비록 작고 가법지만 지니고 있는 공덕이 어떤 보배보다 뛰어난 것과도 같다.

〈해인총림 월원장〉

모든 악 끊고 선 닦는 8가지 방편

오계에 음식·치장·가구 항목 보태

팔관제

지위나 개인적 중요성과 관계될 수도 있다는 점에 그 저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침대나 의자가 마룻바닥이나 그 지면의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팔관제에 '8가지 계(八支戒)' 또는 '공덕을 키워내는 8가지 계(八種長養功德法)'라고도 한다. 팔관제의 제7계를 돌로 나누어 9가지로 말하기도 하는데, 9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8가지를 '계'라 하고, 9번째

및, 느낌, 고정관념의 6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곧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튼 오계와 팔관제는 저마다 그만한 인연이 있으므로 둘다 뛰어난 계입에는 틀림없다. 오계는 목숨이 다하도록 지키는 계이고, 팔관제는 하루만 지키는 계로서 다를 뿐이다. 팔관제는 아함부경전을 비롯한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대승의 경론에

미련된 자리에서만 자라. 이것이 아람로 여덟 부분으로 된 재계이다. 고뇌를 없애버린 부처가 가르친 바이다. 그리고 각각 보름 동안 제8일, 14일, 15일에 우포사타를 행하라. 또 특별한 날에는 여덟 부분으로 된 원만한 재계를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 재계를 행한 자에게는 고요하게 기뻐하며, 이른날 아침 일찍 수행자에게 음식을 배풀어 주라.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

"사성제 가르침 따르면 고통으로부터 해방"

우리가 이기심을 이야기 할 때, 남의 이기심을 탓하는 사람은 있어도, 동시에 자신의 이기심을 탓하는 이는 적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남에게 뒤집어쓰거나 또는 동방 자신이 뒤집어쓰는 것은 어차피 양쪽 모두에게 수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단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리의 빈곤은 결국 실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실천의 빈곤은 다시 논리의 빈곤으로 확대 재생산될 뿐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미래는 더욱 오리무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사성제(四聖諦)는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사성제는 '고통을 투철하게 자각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라. 고통의 원인은 실천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원인의 극복만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타는 현실로 주어진 우리의 고통은 그 고통을 일으키는 여러 조건들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원인에 기인한다'는 지금의 단순한 이 언명은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는 것도, 나 이외의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이외의 것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조건들이 겹쳐져서 비로소 생긴 고통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상호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고통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불교는 수 천년 동안 민족적, 정신적, 문화적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불교적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 모두가 불교의 현실과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법회중계

미륵사 법회

(2000년 6월 16일)



정각스님 (미륵사 주지)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

바르게 알고 실천할때

문제 풀리고 행복 도달

지금의 불교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교는 공적으로 대승 불교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타의 근본 가르침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현실적 문제였음을 자각하지는 못하고, 또 우리는 역할만 다를 뿐 누구나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땅의 고한 현실을 위해 몸으로 뛰어야 할 출가수행자는 어느덧 최고급 승용차에 기대앉은 신상, 귀족계급이 되어버렸고 과거를 진단하고 현실을 분석하여 증생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찰은 뜻 모를 주문과 어지러운 사물소리만이 가득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교의 현실이 과연 불교만의 잘못에서만 기인한 것일까요? 이러한 불교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파편치함도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도 우리는 마땅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불교 현실을 한국사회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 현실의 제반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 전반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이

70년대말 남방·티베트 불교 전래

노르웨이 불교는 1979년 정부의 '정식 종교 인정'을 기점으로 상좌부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유입되었고 카르마 타쉬링 불교센터(Karma Tashi Ling Buddhistcenter)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세계의 불교학 <23> 노르웨이

하임과 스타방거 두 지역에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교센터에는 교수·교사·학생 등을 주축으로 약 1천5백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이웃 나라인 스웨덴과 덴마크의 불자들이 있다.

시험의 철학과목에 불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 불교의 성장세는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공인 종교단체들에게 할당해 주며 지원하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의 종교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불교센터의 경우, 회원 1인당 300



대중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불자들.

달라이 라마 노벨상 받은후 호감

'완벽한 종교' 대입시에 자주 등장

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센터 회원 가운데 자녀를 둔 사 람들이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운회와 인연에 대해 얘기하고 고통·고뇌·번뇌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의 대학입시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고등학교 졸업

크로네(3만2천원) 가량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데, 회원의 회비 250크로네에 '비교하면 전폭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불교 등 종교교육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불교센터 산하 기구 중에서 티

베트 불교에 대한 노르웨이인의 호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노르웨이 티베트 위원회'이다. 불교센터 회원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달라이 라마 친견 스티베트 사원 건축 시달반 인을 위한 명상 강좌 개설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티베트의 고대의술을 응용한 대체의학을 비롯해 티베트의 점성학·풍수학 등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모아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게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70년대 말 노르웨이에 소개된 불교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노르웨이 한 시사주간지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현대의 다양한 갈망을 해결하는 완벽한 종교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절대신에 의한 외부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수양과 성찰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인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베트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베트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지니는 티베트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空을 넘나드는 티베트인들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일 정: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평원으로 (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대륙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베트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출발일: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스포츠 조선과 함께 이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일 ₩1,490,000

일 정: 서울 - 서안 -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출발일: 7/14, 23, 8/11, 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지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 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님들을 생각하며....

일 정: [21박 22일] 서안-난주-가옥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교개(비스)-우루무치(열차)-서안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원, 도시권의 이동, 보험

출발일: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인도전통 여행사 메조에서 선보이는

세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일)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गर,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래, 스리나गर, 정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중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일 정: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 사후 - 래 - 사스폴 - 카르길 스리나गर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 바라나시 - 쿠시나गर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불포함사항: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출발일: 7/2, 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메조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일만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형,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 석주)-쿠시나गर(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정,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목-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원, 전용차량

출발일: 7/2, 16 목, 일(15명이상 출발)